SAMSUNG LIONS PARK

2018 GROUP TICKETS 단체 관람

▶ 신청조건 : 20명 이상

▶ 좌석종류 : VIP석, 중앙/3루테이블, 블루존, 외야테이블, 외야패밀리석 제외한 전 좌석
(일반 예매 오픈 후에는 전 좌석 단체 관람 예매가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해당 경기일 1달 전 ~ 해당 경기일 하루 전

▶ 신청방법 – 이메일 : lyr4734@ticketlink.co.kr
– 콜센터 : 1688-074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주말/공휴일 제외)

▶ 혜택

– 주중 경기(화/수/목/금) 티켓할인

대상 인원	할인 혜택	추가 혜택	예매수수료
20 ~ 49명	장당 500원 할인	방문기업/단체명 메인 전광판 표출(경기 중 1회) 단체관람 예매 및 진행 담당자 선물 제공	별도
50 ~ 99명	장당 1,000원 할인		별도
100명 이상	장당 1,000원 할인		면제

– 50명 이상 단체관람 예매 담당자 감사 선물 제공

특별한 사연의 동료들과 '라팍' 단합대회

DGB '동료주간' 이벤트

지난 3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각각의 이야기를 가진 대구은행 직원 70여 명이 모였다. '내가 함께하고 싶은 동료'라는 주제로 직원에게 사전 신청을 받아 뽑힌 이들이다. '배우자의 암투병을 함께 견디는 직원에게 힘을 주고 싶다' '입행 후 첫 사수였던 상사와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행원이 자리를 채웠다. 지난달 9~23일 대구은행이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동료주간'의 마무리 이벤트로 마련된 자리다. 특별한 사연을 가진 직원이 모였다는 소식에 박인규 대구은행장도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동료의 날과 동료주간을 만든 게 바로 박 행장이다. 그는 지난달 7일 DGB그룹 전 계열사 직원이 모인 단합대회 'DGB Be One' 행사에는 'DGB동료의 날' 제정을 선포하고, 매년 5월 모든 계열사 직원 단합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1967년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대구은행은 임직원 43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전국에 5천여명의 임직원이 있는 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임직원이 많아진 데다 업무의 특성상 지점별로 떨어져 일하다 보니 정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다.

이에 DGB금융지주는 계열사 직원 간 단합을 위해 매년 5월7일을 동료의 날로 정했다. 7일로 정한 것은 DGB금융지주에다 6개 계열사를 합친 것. 동료의 날에 맞춰 진행한 DGB동료주간은 전 계열사 윙크톡 나누기, 동료와 함께하는 비빔밥데이, 활력충전 직원 맞이 이벤트 등으로 진행됐다.

'전 계열사 윙크톡 나누기' 행사는 그룹 통합 사내 인트라넷 시스템을 이용해 직원끼리 서로 격려와 애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박 행장도 이 기간 전 계열사 임직원 5천여명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담아 윙크톡을 날렸다. 또 박 행장은 대구은행 본점 지하식당에서 직원에게 비빔밥을 대접하며 소통한 '동료와 함께하는 비빔밥데이'도 진행했고, 반응이 좋아 애초보다 한 차례 더 진행하기도 했다.

박 행장은 "많은 회사 행사 중에서도 같이 일하는 동료를 위한 것이 없다는 생각에 다양한 동료주간 행사를 진행했고, 직원의 마음에 즐거움이 충만하면 그 에너지가 고객과 거래처에도 전달돼 영업에도 시너지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노인효기자 sunflyeongnam.com

(2016년 6월8일 영남일보 16면 경제)

야구도 보고 모임도 하고…지역 회식문화 패러다임 바꾸는 라팍

우리들의 야구단, 삼성라이온즈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영남일보 27면 스포츠)